

# NKEDU 뉴욕예술원 김용미 교수, 오리지널 IP 'LUMILUPI' 세계관 담은 AI 애니메이션 『We Shine Together』 서울국제AI영화제 공식 선정

✎ 최서희 기자 | ⓒ 승인 2026.06.11 16:52

NKEDU 뉴욕예술원 김용미 교수가 제작한 생성형 AI 애니메이션 『We Shine Together (우리는 함께 빛납니다)』가 서울국제AI영화제(Seoul International AI Film Festival) 공식 선정작(Official Selection)으로 선정됐다.

김용미 교수는 미디어아트와 생성형 AI 기술을 융합한 작품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오리지널 캐릭터 IP '루미루피(LUMILUPI)'를 통해 인류사회를 은유적으로 조명하며, 인간의 인식(Recognition), 공감(Empathy), 공존(Coexistence)을 탐구하는 독창적인 세계관을 구축해 오고 있다.

OFFICIAL SELECTION  
SEOUL  
INTERNATIONAL AI  
Film Festival

2026



LUMILUPI

We Shine Together

K 한국법률경제신문

이번에 선정된 『We Shine Together』는 갈등과 단절이 심화되는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서로를 적이 아닌 동일한 생명으로 인식하는 순간의 의미를 시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작품 속 주인공 루미루피는 어둠 속에서 타인을 알아보게 만드는 작은 빛의 존재로 등장하며, 이해와 공감이 평

화로운 공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때 작품 속 빛은 치유나 감정의 상징이라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인식의 신호(Recognition Signal)'로 기능한다.

김 교수는 "오늘날 인류는 놀라운 기술 발전과 문명을 이루었음에도 여전히 다양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다"며 "이 작품은 상대를 적이 아닌 같은 생명으로 인식하는 순간이야말로 공존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NKEDU 뉴욕예술원 권석준 총괄교수는 "김용미 교수의 작업은 생성형 AI 기술을 단순한 제작 도구가 아닌 철학적 사유와 감성적 공감을 전달하는 예술적 매체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루미루피 프로젝트는 기술과 인간성, 예술과 사회적 메시지를 연결하는 동시대 융합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용미 교수는 생성형 AI 기반 미디어아트 및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작품은 뉴욕 Big Screen Plaza 상영과 프랑스 파리 국제 전시 참여 등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소개된 바 있다.

이번 서울국제AI영화제 공식 선정은 생성형 AI 기술을 단순한 제작 도구를 넘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매체로 확장해 온 김용미 교수의 예술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AI 예술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결합한 그의 작업은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교수는 앞으로도 루미루피 세계관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인터랙티브 전시 등 다양한 형태의 융합 콘텐츠를 선보이며, 인식과 공감,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의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선정작의 연출 의도와 인간의 공존을 탐구하는 오리지널 캐릭터 '루미루피'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 및 후속 작업 아카이브는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lumilupi.25)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최서희 기자 [dmg@klawtimes.co.kr](mailto:dmg@klawtimes.co.kr)